

본 회

4개 단체와 공동 연명,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에 대한 탄원서 제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5월 30일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4개 단체(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공조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조속 도입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03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근로지원소득세제(ETC) 도입을 위해 금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를 관할 무서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불성실 신고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출된 임금지급조서 자료가 관련공단과 공유될 경우 미납입 보험료 소급추징(3년) 등으로 전문건설업계는 사업포기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4개 단체 회의를 주관했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4개 단체 실무자들은 전문건설업계의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청와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회 재경위, 재경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歎 願 書

2006. 5. 30.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장술 외 35,704개 전문건설업체 대표 일동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외 5,522개 설비건설업체 대표 일동



-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주창현 외 11,013개 전기공사업체 대표 일동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 장승익 외 5,866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일동



본 회

국민연금 · 건강보험제도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 제도개선 탄원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련 산업의 특징은 제조업과 달리 수주산업이며 노동집약형으로 주로 옥외작업임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와 인력의 고령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금년부터 소득양극화 해소 목적으로 근로지원소득세제(EITC)도입을 위해 모든 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불성실신고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3D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재분배를 통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는 『근로지원소득세제(EITC)』도입 및 소득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우리 건설관련 업체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 ¹공공공사부문은 국민연금의 경우 법정보험료의 약 53%만 공무원가에 반영하는 등 대부분의 의무보험에 대해 법정요율의 일부만을 공무원가에 반영하고 있고, ²민간공사부문은 보험료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³일용근로자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먼 장래에 도래하는 노후 보장보다는 당장의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자신들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을 임금삭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업주의 보험료공제시 다른 시공현장으로 이탈하는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사업주가 추가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경영압박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근로지원소득세제(EITC) 도입을 위해 활용되는 통합전산망 자료(시공일용근로자의 과세자료, 4대보험 통합자료)가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경우, 보험에 미가입한 전문 · 설비 · 전기 · 정보통신공사업체는 ¹발주자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²공제를 거부하는 일용직근로자의 보험료까지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³일부업체들은 불성실신고자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전문 · 설비 · 전기 · 정보통신공사업 6만여 업체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하락으로 인한 공사수주물량이 대폭적인 감소와 환율 및 원자재값의 급등으로 인한 공사수행비용의 증가로 정상적인 경영에 큰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들의 4가지 건의사항은, 결코 정부의 일용직임금지급조서제출제도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주로서의 이윤추구 및 다수의 힘을 빌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상의 애로로 인하여 탄원드리는 사항이오니 일용직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공사 발주시, 각 발주기관이 **보험료의 법정요율을 모두 공무원가에 반영하도록 공무원가산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제도정비 이전에 공무원가에 반영된 보험료보다 초과 납부되는 보험료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시공자가 추가 부담한 보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민간발주공사의 경우 **국민연금법등 관련 법령에 보험료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영한다는 조항과 보험료 미반영시 발주자(시행자)와 원도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주시고, 동 보험료는 낙찰율에 의해 조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 건강보험제도가 시공현장에서 정착되는 시점(발주자의 법정보험료적용, 일용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조서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점을 최소 2년이상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민연금 · 건강보험제도가 시공현장에서 정착될 때까지는 제출된 임금지급조서 정보를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부과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만여 업체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의를 수용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30일

자동제어협의회

제11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및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간담회 개최



■ 기계설비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간담회



■ 제 11차 자동제어 설비공사협의회 회의

자동 제어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윤영근)는 지난 5월 9일 설비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제11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계설비 자동제어업계의 발전방안과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이어 기계설비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영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업역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는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에 하도급」하도록 건의한 결과 건교부가 정부 등 각 발주기관에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협조요청하는 공문이 시달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중학 회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근 회장은 이어서 “오늘 모임이 자동제어설비공사 업계가 화합되고 단결된 한마당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중학 회장은 축사에서 “업종별 협의회 중 화합이 잘되는 자동제어협의회는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자동제어 업역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요즘 최대 화두인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작성으로 설비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EITC 시스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제도가 건설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착된 이후 시행해 줄 것과, EITC 이외에 임금지급조서 자료 사용을 유예토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국세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제어협의회, 본회인사



■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는 자동제어업계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박종학 회장은 또 “정부가 건설업계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대 보험과 EITC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갈 해법은 없다”면서 “자동제어업계 회원사들도 예전에

등한시켰던 4대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과거 적당한 금액으로 원가를 산출하던 주먹구구식의 경영으로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정호 전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동제어업계가 나날이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더구나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함께 노력하니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후 “이제 자동제어업계는 품질경영으로 상생경영하는 업계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에게 자동제어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

최동호 상임부회장 취임

대한 설비건설협회는 지난 6월 7일 상임부회장에 최동호 전 건설교통부 교통정책과장(부이사관)을 선임했다.

경동고,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동호 상임부회장은 68년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기술관리실, 토지국, 건설경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주요 요직을 거쳐 교통정책과장,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금강홍수통제소장을 역임했다.

특히 최동호 상임부회장은 건설경제팀의 전신인 건설경제과에서 건설관련 제도업무를 총괄한 바 있어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호 신임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2008년 정기총회까지이다. 🌟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 조찬간담회 개최



서울 특별시회(회장 강석대)가 지난 5월 9일 르네상스 호텔 제이드룸에서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원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석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EITC제도시행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영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석대 회장은 “정부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장한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마다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했다”면서 “EITC 시행을 위한 통합전산망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인데 여기에 4대 보험 통합자료와 일용근로자 과세자료가 포함돼 관련부처들이 공유하게 되면 4대 보험료의 소급추징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석대 회장은 또 “우리 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산제도가 건설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착된 이후 시행해

줄 것과 임금지급조서 자료는 EITC 이외에 사용을 유예토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국세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일부만 반영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협회가 관계기관에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공무원가에 보험료의 일부가 반영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하도급자의 낙찰률에 의해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의 전액이 아닌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공사에는 아직까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아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우리 협회는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대 회장은 또 “협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회원사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제 저기수주

서울특별시회

는 자멸하는 길이므로 저가수주를 지양해야 함은 물론 보
 험료를 반영하여 입찰에 응해야만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이
 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대 유원재 교수가 초청되어
 「CEO는 디자이너」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유원재 교수는 “설비는 감추어져 있는 마술”이라고 정
 의하고, “설비가 감추어진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쾌적하고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덧붙였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설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설
 비건설업을 경영하는 CEO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원재 교수는 “규칙은 경직되어 있으므로 생각의 틀을
 깨는 파괴의 힘을 통해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CEO가 고정관념을 깬 때 그 업체는 발전이 있을 것” 이라
 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들은 “기업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EO
 가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경쟁력을 갖출 것” 이라고 입을 모
 으고 앞으로는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

지방계약법 해설 강습회 개최



서울 특별시회(회장 강석대)가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
 에서 지방계약법령 강습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발주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들의 정부시설공사 계약 및 업

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강습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강습회에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기효정 계약담
 당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계약법령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대가지급, 설계변경 등의
 내용을 강의해 회원사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었다. 🌟

서울특별시회

2006년도 제1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서울 특별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임종태)는 지난 4월 28일 동양파이프라이닝(주)(대표 김중우)와 미강기업(주)(대표 이한수)가 공동도급으로 시공중인 서울 상암고 신축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2006년도 제1차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초로 분리발주한 상암고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는 총 12억7천1백69만1천원의 공사규모로, 지난 2005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8월 말경 완공 예정인데, 4월 23일 현재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시공품질점검에 나선 임종태 위원장(주)우원 대표와 박달하 위원(정인설비(주) 대표), 송기영 위원(주)금화 PSC 대표는 공사현장의 일반사항 및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체크한 후 동양파이프라이닝(주)의 전성태 현장소장에게 “서울시 교육청이 처

음으로 분리발주한 공사여서 향후 분리발주 확대에 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현장인 만큼 시공품질 향상 및 건설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타공정과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 및 솔선수범을 통해 향후 서울시 교육청 공사에 분리발주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특별시회는 2006년도 현장점검 평가 결과 우수 시공 회원사로 뽑힐 경우 총회 시 포상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부산시회


2006 설비기술 세미나 개최



부산 광역시회(회장 김광환)는 지난 5월 17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2006 설비기술 세미나'를 개최, 부산지역 회원사들의 설비기술 동향 파악과 함께 새로운 공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사)한국설비기술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사)대한설비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건축설비와 관련된 학계 및 업계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신설계(주) 정종립 상무가 양산 부산대학병원 신축 설계사례를 △E&E System 김종률 박사가 수축열 시스템 특성 설계기술 △대한설비건설협회 황영환 부장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LG전자 김병순 연구위원이 건물공조 시스템의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하므로써 부산지역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국제신문 대강당 로비에 설비기자재전이 열려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울산 · 경남도회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간담회 개최



울산 · 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지난 5월 12일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강당에서 경남지역 회원사 100여명과 창원세무서 허영만 법인2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및 4대 보험 연계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 · 경남도회는 또한 울산지역 회원사를 위해 지난 5월 15일 울산과학대학 서부캠퍼스에서 울산지역 회원사 100여명과 울산세무서 세원관리2과 윤승환 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200여명의 회원사 대표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작성 제출 요령 등에 대한 설명과 4대 보험 연계 문제 등에 대한 교육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울산 · 경남 지역 회원사들은 공사수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과 아울러 최근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의무제출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러한 소득신고 자료는 4대 보험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 이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일괄 추정하게 되면 회원사로서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에 강사로 나선 울산, 창원지역 세무서 담당관들은 토출된 내용을 수렴하여 상급기관에 개선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어서 울산 · 경남도회 김봉규 사무처장이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참석 회원사들의 발표를 통해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원사들은 앞으로 자주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려운 현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충북도회


가스시설시공업 1종 회원사 간담회 개최



충북도회(회장 장순경)는 지난 4월 19일 청주시 성일 사무관과 정 길 주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원용준 본부장과 안창기 검사 1부장,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용권 기술지원실장과 도내 20여 가스시공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스시설시공업 1종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순경 회장은 가스시설시공업계 및 설비건설업계의 현안과 당면과제 등을 설명하고 “최근의 국제정세와 유가급등, BTL등 건설경기의 침체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 일수록 힘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 역량을 발휘하자”며 회원사들을 독려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우리 설비건설

업계의 업역 확대 및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북지역 가스시설시공업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강원도회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금 전달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의



강원도회(회장 강현우)는 지난 5월 8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강원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내 회원사를 상대로 모금한 3백만원을 한장수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강현우 회장은 이어서 “2003년 이후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에서 분리발주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일부 시·군교육청이 통합발주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분리발주 실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BTL사업 추진시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참여,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시 지역전문건설업체 우대제도 방안 강구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강현우 회장 외 운영위원들은 대한설비건설협회 및 설비건설업계의 현안사항 등을 건의했고, 한장수 교육감은 도내 업체를 활성화시키는데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원도회

제4회 회원 친목 단합대회 개최



강원도회(회장 강현우)는 지난 5월 27일 강원도 태백산에서 강원도내 회원사 간의 친목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친목도모와 함께 태백산 일대의 자연정화 활동도 함께 했다.

이날 강현우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강원도내 회원사들은 태백산 등반을 통해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함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했다. 또한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지역 회원사들의 업역 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